

제13편 - 덕소신앙촌 시대 <제1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53회)

제13편
 덕소신앙촌시대 <제1부>
 - 제2 신앙촌인 덕소신앙촌
 1) 덕소신앙촌 건설 당시의 상황
 2) 제2신앙촌의 건설(덕소신앙촌)
 二. 덕소신앙촌은 해와이긴자 회복의 상징
 三. 144,000의 왕의 수

一. 제2신앙촌인 덕소(德沼)신앙촌

2) 제2신앙촌의 건설(덕소신앙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1961년 1월 27일 영모님은 장면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2차로 구속 당하시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 주도로 이루어진 군사 혁명으로 석방이 되신다.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영모님은 제2 신앙촌 건설을 위하여 서두르시는 것이다. 다들 깜짝 놀랐다. 다들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다들 이해를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모님은 소사신앙촌을 건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소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신 것이다. 소사신앙촌 사람들은 소래산으로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니 그곳에서 주님을 맞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소래 포구로 세계에서 수많은 배들이 황금과 보화를 싣고 들어온다고 영모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신앙촌 사람들은 모든 일이 소사 신앙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2신앙촌을 건설하신다고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영모님께서서는 첫째울타리, 둘째울타리, 셋째울타리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아니다. 문하나씩 통과해 들어가서 셋째문까지 통과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셋째울타리에 들어가면 유리 집을 짓는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연결시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당황을 하

고 있는 것이다. 소사신앙촌의 건설만으로 많은 교인들은 놀라워 하면서 이곳 소사에서 끝맺음을 한다고만 생각을 하였지 둘째 셋째 울타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영모님께서 옥고를 치르시고 나오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곳에 신앙촌을 건설하시고 옮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여건이 특히 경제적인 여건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떻든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소사에서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영모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아해하고 또는 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곳에 신앙촌을 건설한다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영모님은 단호했다. 내가 한다면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뜻을 아느냐 라는 뜻이 일방적으로 제2신앙촌 장소를 물색하고 장소를 결정하셨다. 장소는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덕소리이다. 약 7만평의 부지를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박태선 영모님은 무엇 때문에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도 서둘러 무리를 하시면서 제2 신앙촌을 건설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박태선 영모님의 사명은 구세주 출현시키시는 하늘의 사명을 맡아 출현하신 분임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신앙촌 건설은 구세주 출현 과정에서 세 분의 승리하신



덕소신앙촌 전경

하나님이 출현하시는데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출현에 성공을 거두실 시점에 그 주인공들의 출현을 상징으로 신앙촌을 건설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래서 제 1신앙촌의 건설은 첫번째 하나님인 박태선 영모님의 출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박태선 영모님은 옥고를 치르신 몸을 추스르시지도 않고 간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2신앙촌 건설을 강행하고 계신 것이다. 왜일까? 그것은 두번째 승리하신 하나님의 출현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번째 하나님이 출현하실 시점이 된 이상 영모님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건설을 안할 수가 없었던 사정이 있으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늘의 뜻을 모르는 신앙촌 사람들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판단을 하고 반대를 하였던 것이다.

이미 설명을 한 바 있는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 있는 밀실에서는 '천사마귀' 라고 지탄 받던 홍업비 권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

은 독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영모님은 그 분 홍업비 권사님이 해와이긴자로 출현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신 것이다. 밀실의 천사마귀인 홍업비님이 승리하시는 데 성공을 거두시면 해와이긴자로 출현하시게 되는 것이다. 삼신이 역할한다는 밀실에서 두 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 성공을 하신다는 뜻이 된다. 그렇게 되면 밀실에서는 한 분의 하나님만 승리하시어 출현하시면 예언서에 있는 그대로 삼신이 일체로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二. 덕소 제2 신앙촌은 해와 하나님의 상징

1) 제2 신앙촌(덕소신앙촌)
 덕소 제2 신앙촌은 삼신중(三神中) 두번째 하나님의 출현을 상징하는 신앙촌이 된다. 두번째로 출현하시는 하나님은 밀실에서 출현한 2천년성이요, 둘째 천국이 된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나니라' (눅17:21) '하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곧 천국이 되신다. 그러나 두번째 하나님으로 승리하시어 출현하시는 해와이긴자는 둘째 천국이 되시고 또 2천년성이 되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출현을 상징하여 건설하는 것이 신앙촌들이다. 그러므로 제2 신앙촌은 둘째 천국이 되시는 두번째 하나님이 출현했다는 상징으로 건설되었던 것이다.

성경 스가랴서 4장 11절에 보면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의 예언을 보면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감람나무 원체가 두 가지를 키우게 되어 있는 것이다. 감람나무 원체는 박태선 영모님이시고 박태선 영모님이 두 가지를 키우시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해와이긴자와 아담이긴자이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밀실에 들여 보내진 홍업비 권사님이 해와이긴자로 출현하시는데 성공을 거두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와이긴자가 출현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담이긴자가 출현하여야 되는데 이 아담이긴자가 삼신이 합일되어 출현하시게 되는 인류가 고대하는 구세주 하나님이 되신다. (고전15:45)

2) 제2 신앙촌은 해와하나님의 상징
 위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제2 신앙촌은 둘째 하나님 해와하나님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구세주 출현 공식 속에는 세 분 하나님이 출현하시어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완성을 이루셔야 되게끔 계획을 짜 놓으셨다.(묵3:21) 그리고 더욱 어렵고 까다롭게 계획을 짜놓으신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 중 한 분은 반드시 여인으로 출현하시게끔 짜 놓으신 것이다.

가) 성경속에 있는 두번째 해와하나님

위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이 감람나무 원체가 되는 박태선 영모님이 두 가지를 찾아 키워 승리한 하나님으로 키우게 되어 있는데 여기 두가지 중 한 분이 여인으로 승리하시어 출현하시게 되는 해와이긴자이다.(스가랴 4:11)

나) 불경 속에 있는 두번째 부처인 여인 부처님

불경 속에서도 세 분의 부처가 나오시게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여인으로 나오신다.

有三人人所應供養 天人中最高
 有善人善人善人善人 天人中最
 云何爲一者女人
 有女有女有女有女

- 증일아함경12권
 "세상 사람들이 높이 받들어 공양하는 세 사람이 있다. 하늘과 사람 가운데 최고로 높다. 무엇이 셋이 되는가? 세 분 중 한 분은 여인이다."

불경에서도 세 분이 나오시는데 한 분은 여인으로 나오신다고 한 이분이 해와이긴자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34회

땅을 찢고 올라온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온 인류가 신화(神化; 하나님으로 화함)된다

편집자주
 격암유록 신해설이라는 제목 아래 1회부터 33회까지 기사를 작성해 주신 박명하(고서연구가)님이 개인 사정 상 조금 휴식을 갖고 예년처럼 출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34회부터는 김성조(吉星照)님이 집필하기로 하였으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生初之樂(九) 생초지락

日月有數大小定 일월유수대소정
 聖功生焉神明出 성공생인신명출
 達別幾年書家傳 봉별기년서가전
 更逢今日修源旅 경봉금일수원려
 誰知今日修源旅 수지금일수원려
 善人英雄喜逢年 선인영웅희봉년
 英雄何事從盤角 영웅하사종반각
 月明萬里天皇來 월명만리천황래
 春香消息問英雄 춘향소식문영웅
 昨見山城宮闈 昨見山城宮闈

해와 달의 길고 짧은 운수가 정해져 있네. 성인의 생명이 끊어진 후 성인이 빛의 신으로 출현하네. 이별한 지 몇 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서가에서 전하네. 누가 금일 수원 나그네를 다시 만날 수가 있겠는가? 누가 금일 수원 나그네를 알 수가 있겠는가?
 선인과 영웅이 기쁨으로 만나는 때이네. 영웅이 반각(盤角=落盤四乳낙반사유)의 이기신 하나님(十勝십승)을 따르는 이치이네. 달빛이 만 리를 비추니 하늘의 황제가 감동하여 춘향의 소

식을 영웅에게 물어볼 것이네. 어제의 초라한 산성이 오늘에 이르러 궁궐로 바뀌네.

知解此書有福家 지해차서유복가
 未解此書無福家 미해차서무복가
 此言不中非天語 차언부중비천어
 是誰敢作此書傳 시수감작차서전
 三尺金琴萬國朝 삼척금금만국조선화
 利刃重劍四海裂蕩神化經
 이인중검사해열망신화경
 云河圖洛書易明理 운하도낙서역명리
 太初之世牛性人 태초지세우성인
 牛性牛性斗牛上帝子 우성우성두우상제자

이글을 이해하고 알면 복 받은 집안이나, 풀지 못하면 복 없는 집안이네. 이 글은 모두 천신의 말이 아닌 것이 없네. 누가 감히 이 글을 지어 전한단 말인가. 삼척(三尺;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공樂工이 되어이 금금(金琴; 금빛 거문고) 즉 변치 않는 진리말씀을 연주 하니 만국이 조선의 세계로 화할 것이네. 중생(重生; 하나님의 다시 태어남)의 겸이 날카롭게 난도질할 때에는 사해만방이 열탕(裂蕩)으로 화하게 되니 해만방이 열탕(裂蕩)으로 화하게 되니 땅을 찢고 올라온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온 인류가 신화(神化; 하나님으로 화함)의 경(經=地境지경)에 이르겠네. 이르기를, 하도낙서(河圖洛書)와 주역(周易)의 밝은 이치는 태초의 우성인(牛性人; 영적 암마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우성(牛性; 하나님)은 두

우(斗牛; 복두칠성의 하나님)로서 영원 무궁토록 샘솟는 생수의 근원이며 상제 하나님 곧 천자(天子)이로다.

乾性牛兮牛性 건성우혜우성
 乾逢坤而爲馬牛 건봉곤이위마우
 坤逢乾而爲牛馬 곤봉건이위우마
 牛聲在野九馬車 우성재야구마세
 德厚道牛馬聲 덕후도우마성

건성(乾性; 하늘의 성품)은 소(牛)와 같아서 우성(牛性; 영적 암마 하나님)이로다. 건(乾; 하늘=말)이 곧(坤; 땅=소) 위로 만나니 주역의 이치로 풀면 지천태괘(地天泰卦: ䷊)요, 반대로 곤(坤; 땅=牛)이 건(乾; 하늘=馬) 위에 만나니 또한 주역의 이치로 풀면 천지비괘(天地否卦: ䷋)이네. 소울음 소리가 인부지간(仁富之間; 인천과 부천 사이) 또는 평사지간(平砂之間; 부평과 소사 사이)에 있는 궁을촌(弓乙村)에서 울려 퍼지니, 구마(九馬; 3+3+3 즉 9수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가 인간 세상에 오셨음을 알람이로다. 덕성을 갖추어 도(道)를 잘 닦는 자만이 우마(牛馬; 소의 성품 즉 암마의 성품으로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리라.

何者能知出此人 하자능지출차인
 此人是非非眞人 차인시비시진인
 仙藥伐病滅葬理 선약발병멸장개
 葬埋滅災神奇法 장매멸이신기법
 誰可覺而見不笑 수가각이견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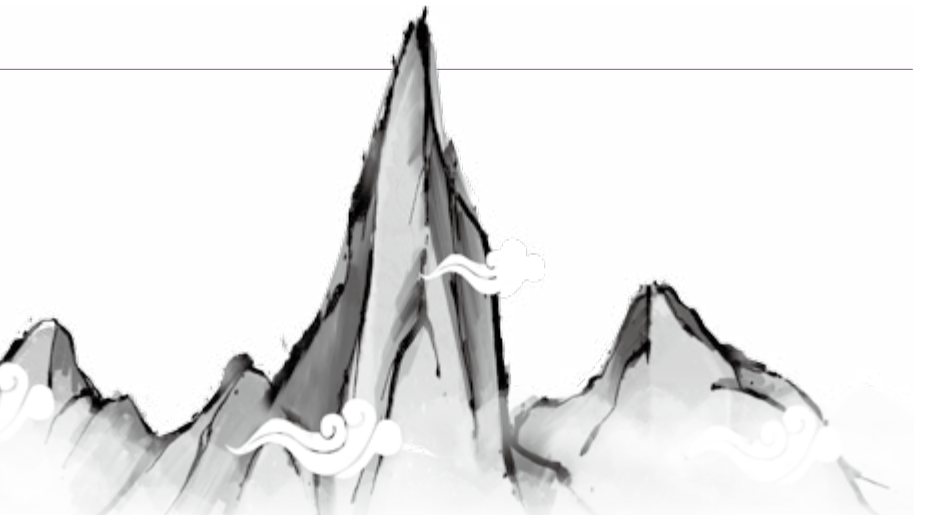
어떤 사람이 출(出=해탈, 성불)한 이분을 능히 알 수 있겠는가? 이분에 대한 시비가 있을 후 진인으로 인정하게 되리라. 해인선약(海印仙藥; 감모이슬)이 병(病)을 치료하여 장애지내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네. 장애지내는 일을 이(夷; 대대와 궁공의 합자로써 궁을십승 진인을 뜻함)의 신기한 회춘법으로 없게 하네. 누가 가히 이러한 신기한 법을 깨우칠 수 있겠는가? 하여 장애지내는 일이 없게 하는 법을 보게 되면 비웃지 마소.

人得是非而後能成 인득시비이후능성
 人能得雲雨而後成變化
 人能得雲雨而後成變化
 今世士者無識人 금세사자무식인

이 진인(眞人)은 신분별(神分別)을 잘하여 능히 도성인신(道成人身)할 수 있었네. 이루어진 진인이 구름 같은 성령의 은혜와 감로법우(甘露法雨)를 얻은 다음에야 그 감로이슬성신으로 천지만물과 인간을 변화시켜 성도(成道)하리라. 오늘날 선비라고 하는 학자들이 진인에 대해서 무식(無識)하도다.

何可人物貪食利人去弓弓
 何可人物貪食利人去弓弓
 我來矢矢 아래시시

어찌 옳은 인물이 탐리(貪利; 이익을 탐냄)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리



칠 수 있으리요. 진인은 버금 '아(亞; 弓+弓) 즉 백십자의 이치로 나아가지만, '나(我) 라는 마구니는 궁을십승(弓乙十勝)이 쓰는 감로이슬의 화살을 맞고 또 맞아 죽어서 오겠네.

出判愆天有勢弓弓 출판훈천유세궁공거
 屈無勢失矢來空中和言心中化
 굴무세시시래공중화연심중화
 道通天地無形外 도통천지무형외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기세의 조짐이 보이면 쌍궁(弓弓; 백십자를 상징하는 십승十勝)의 이기신 하나님이나감이라. '죽음을 벗어남(屈; 尸+出)' 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나(我) 라는 마구니의 위세가 없어짐에 있으니, 마음을 비워 화평 가운데 있는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모두 이루어짐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의 말과 같네. 도통(道通)은 천지간에 무형(無形) 마음 밖에 다른 방법이 없네.*

吉星照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